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의 친정방문 <NAL자> 프로젝트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이주여성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오는 이주여성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해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나 제도적 뒷받침 등의 부족으로 다문화 가정들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시작의 하나로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함께 친정에 방문할 수 있는 <NAL자>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NAL자>프로젝트는 단 33가족(필리핀 26가족 / 베트남 7가족)만이 친정에 방문하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친정을 방문하게 되어, 가족원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사회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여성재단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8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여행을 통해 아내,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슴 가득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삼성생명과 사업 진행을 위해 애쓰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